

중 유학생 복귀 앞두고 지역대학 대책 분주

광주 1000여명 개강 맞춰 귀국 기숙사 통째 비워 2주간 격리 방역당국 지침 없어 혼란 우려

춘절을 마친 중국인 재학생들의 귀국과 신입 유학생들의 입학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대학들에 따르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8000명 안팎으로 이 중 상당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다. 광주지역 18개 대학에만 250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절반 가량이 1150명이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97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호남대는 300여 명이 수용 가능하고 자체 급식시설이 있는 기숙사에 유학생들을 2주간 격리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관리·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지난주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리조치하고 있다. 기숙사 1개동 1~5층을 비워 중국 체류 사실이 있는 학생들만 머물도록 하고 있다. 입학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부터 6~11층도 격리 공간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학과장을 중심으로 유학생 관리체계를 가동해 4~5명 단위로 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4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조선대는 이달 초 기숙사 한 건물을 통째로

비워 2주간 격리시킬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112명은 국내 체류중이고, 290명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 입실 전 체온검사 등 기본 건강상태 확인 후, 1인 1실로 격리할 예정이다. 방 외부로의 이동은 제한되고, 식사는 도시락 등이 제공된다.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하루 2~3차례 전화 등으로 건강상태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동신대, 광주대, 순천대, 목포대 등도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수용할 시설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각 대학들은 비자 문제 등 일부 변수와 격리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당장 체류 비자 갱신이 시급한 과제다.

유학생들이 국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선 서둘러 입국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정부가 언제 중국인 입국을 허용할 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짧은 시기에 집중 입국이 이뤄질 경우 격리시설 수용 한계치를 넘어설 수도 있어 수용공간 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할 경우 자가격리에 나서야 하지만, 이 경우 철저한 관리에 어려움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방역 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각 대학에 ‘1인 1실 격리’를 통보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한 번 돌리면 견잡을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총괄적 지침과 공동 대응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2 해질 18:12 달뜨기 22:48 달지기 10:03

한 낮엔 포근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많고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7/13	보성	구름많음	5/12
목포	구름많음	5/10	순천	비온뒤 맑	9/13
여수	구름많음	8/12	영광	구름많음	5/12
나주	구름많음	6/12	진도	구름많음	5/11
완도	구름많음	8/12	전주	구름많음	7/13
구례	구름많음	8/13	군산	구름많음	4/11
강진	비온뒤 맑	6/14	남원	구름많음	6/14
해남	구름많음	6/13	축산도	구름많음	7/12
장성	구름많음	6/1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서~북서 0.5~1.5	동~남동 0.5~1.0	
	면바다(북)	서~북서 1.0~2.0	동~남동 0.5~1.5	
	면바다(남)	서~북서 1.0~2.0	동~남동 0.5~1.5	
남해서부	안바다	서~북서 0.5~1.5	동~남동 1.0~2.0	
	면바다(서)	서~북서 1.5~2.5	동~남동 1.0~2.0	
	면바다(동)	서~북서 1.0~2.5	동~남동 1.0~2.0	

◇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10 22:37	05:01 17:30
여수	간조	만조
	05:44 18:08	--:--

◇ 주간 날씨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	☁	☁	☁	☀	☀	☀
6/16	5/16	3/4	-1/3	-2/6	-1/9	0/12



5·18묘지 찾은 노르웨이 대사 프르다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묘사 묘소를 참배하며 해상사로부터 항쟁 배경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동구 '녹지 한평 늘리기' 용산차량기지 벽면 녹화 추진

광주시 동구가 녹색도시 만들기 위해 나섰다. 동구는 용산동 광주시도시설도용산차량기지를 대상으로 '녹지 한평 늘리기 사업' (벽면녹화)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2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동구는 600m 길이의 철판으로 둘러싸인 용산차량기지 벽면을 덩굴류 식물로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녹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계 사업 5·18 정신계승 참여단체 모집

5·18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12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다양한 5·18 정신 계승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중이다. '시민사회 연대사업'은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기념행사·교육문화·학술·외국평화 및 진상규명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기념재단은 총 사업비로 8600만원을 확보, 참여 단체에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사학법인 이사장 부부 세금 수십억원 수년째 체납

"잘못된 과세에 대한 소송 중"

광주의 한 사학법인 이사장 부부가 수십억 원의 세금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이사장 측은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사장 부부의 고액 체납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법인과 해당 법인이 운영 하는 학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과 세무 당국에 따르면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 A(72)씨와 A씨의 부인인 B(71)씨의 지난해 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A씨가 25억 4200만원, B씨가 33억 4900만원으로 부부 합산 58억 9100만원에 이른다. 현 이사장 A씨는 양도소득세 등 17건, 전 이사장 B씨는 증여세 등 12건을 체납 중이다. 체납기간은 A씨가 최초체납일로부터 4년, B씨가 최종 체납일로부터 7년이 경과했다.

이에 대해 직전 이사장 B씨는 "증여세의 상당액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데 대한 것으로 잘못된 과세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늦어도 3년 안에 자동 소멸될 부분"이라며 "학교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재를 털어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정규교사 채용을 대가로 5000만원의 빚돈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교육청·비정규직노조 급식조리원 정원 조정 갈등

학교 급식조리원 정원 조정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합의 파기"라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교육청 측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12일 광주시 교육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노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한 주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합의 파기"라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교육청 측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조리원 정원 감소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런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북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등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불안감이 확산되자 광주시 북구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대책을 내놨다. 북구는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북구 내 소상공인 경영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보증금을 출연하고 13일부터 특별보증 대출 및 이자 차액 보전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은 북구 1억원, 광주은행이 5000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

인 22억 5000만원을 신용보증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북구 창업학교 수료자는 신규 창업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된다.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2년간 연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특별보증금 소진시까지 운영하며 북구 매곡동의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